

2005년 9월 23일 통권 제5호

# 혁신정책 *Brief*

## 새로운 과학기술 투자주체 비영리민간재단

| 김 석 현

### Conte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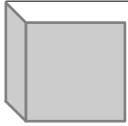
#### 목 차

□ 요약 3

- 1. 과학기술발전에 있어 비영리민간재단의 의의 5
- 2.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과 과학기술지원 10
- 3. 일본의 비영리민간재단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15
- 4. 한국의 비영리민간재단과 과학기술지원 19
- 5. 재단의 과학기술분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안 26
- 6. 참고자료 31

제호 / 혁신Brief (월간)  
 발행인 / 최영락  
 편집인 / 조황희  
 발행일 / 2005년 9월 23일  
 발행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56-714 서울시 동작구  
 신대방동 395-70  
 전문건설화관 20F, 26F, 27F  
 등록번호 / 서울라 09680  
 등록일자 / 2005년 7월 6일  
 대표전화 /  
 02)3284-1800, 1899  
 대표팩스 / 02)849-8016  
 인쇄 / 미래미디어

**STEPi**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센터



## 요 약

### ☑ 비영리민간재단과 과학기술: 정부와 시장의 한계에 대한 대안

- 재단은 역사적으로 자선사업 등 한정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으나 최근 사회가 다원화되면서 정부와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공공사업의 주체로서 부상함
- 과학기술연구의 성과는 인류에 보편적인 혜택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부와 시장만으로는 필요한 지원이 어려워 비영리민간기구 또는 제3섹터형기구의 지원이 필요함
- 미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비영리재단이 새로운 과학기술지원자금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한국은 아주 미흡함

### ☑ 미국, 비영리민간재단이 과학기술지원에서 세계적인 흐름을 주도

- 미국은 비영리민간재단의 수가 66,000개, 지원금액은 300억달러, 자산금액은 4,770억 달러에 이룸 (2003년 기준)
- 미국의 재단은 활발한 개인기부와 더불어 다양한 공익사업을 펼치고 있음
- 과학기술분야지원은 전체지원금액의 3%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Keck Foundation 처럼 과학기술연구 지원에 특화된 재단들이 존재함

### ☑ 일본, 규모는 작지만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비영리민간재단이 많음

- 미국에서와 같은 개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 재단의 규모나 지원사업규모는 작음
- 그러나 전문화된 학술연구지원 사업영역을 갖고 있으며 특히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원이 활발함

### ☑ 한국, 시작단계이지만 최근 규모나 전문성에서 발전하고 있음

- 재단의 수(활동중인 재단은 100개 이하)나 지원금액(총합 약 5000억원), 지원사업의 다양성 등에서 시작단계



- 목적사업들에서는 장학사업에 치우치고 있고 (80%의 재단들) 의료복지재단의 지원금액이 전체의 70%에 이를 정도로, 활동내용이 제한적임
- 전문화된 영역/인력과 자금원을 못 갖추고 유명무실한 재단들이 많음
- 그러나, 최근 재단의 규모나 사업비 모두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체계적인 활동을 보여주는 기업재단과 <아름다운재단> 또는 <아이들의미래>와 같은 시민재단이 늘고 있음
-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도 증가해서 최근 과학기술 진흥을 목표로 하는 재단들이 늘고 있음 (전체 26개 과기부등록비영리재단 중 6개가 2002년 이후 설립됨)

#### ☐ 비영리민간재단의 과학기술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안

##### (조세제도)

- 장기적으로는, 세금감면혜택이 따르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이 법에 의해 명시되는 허가주의체제에서 일정요건을 만족하는 비영리법인이면 모두 허용하는 신고주의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
- 기부금 제공과 관련된 법인세 손비처리기준과 소득세 개인소득액 공제규모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현재, 법인세공제폭(5%)이나 소득세공제폭(10%) 모두 미국(각각 10%, 50%)에 비해 낮음
- 기업에게는 여전히 강제성기부금으로 여겨지는 법정기부금을 줄여서 기업이 독자적 판단에 기반해 기부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함
- 과학기술기본법에 명시된 육성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이 되게끔 연계시키는 등의 제도적 개선을 통해 실효성 있는 비영리재단 지원이 필요.

##### (설립/운영)

- 학술지원은 장학금 지급 등 개인에게 혜택이 국한되는 지원에서 경쟁방식에 의한 학술연구지원으로 사업의 방향을 전환해 공익성에 보다 충실해야함
- 비영리민간재단이 과학기술지원 활동을 통해 복지 등 구휼차원을 넘어서서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 새로운 투자원의 역할을 해야 함. 현재 국가의 예산제약으로 미처 지원되지 못하고 있는 인력양성/기초과학육성을 도모해야함
- 기업과 과학기술자를 비롯한 개인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과학기술지원 시민사회재단을 세워서 자금을 집중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함
- 시민사회재단 활동은 출연자별 사업으로 구성해서 참여의욕을 고취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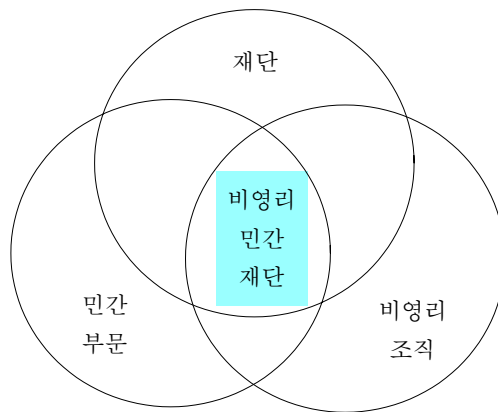


# 1 과학기술발전에 있어 비영리민간재단의 의의

## ▣ 비영리민간재단의 개념

- 비영리민간재단은 비영리, 민간, 그리고 재단이라는 세 가지 개념의 교집합으로서 정의될 수 있음.
  - 비영리조직(nonprofit organization or NPO)은 교육, 종교, 복지 등과 관련된 비영리기관의 목적사업에 재원을 지원하는 조직을 의미함. 정부가 대표적임.
  - 민간부문(nongovernmental organization or NGO)은 세금에 기반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부문과 달리 개인 또는 기업 등 민간부문이 형성한 자산에 기반한 조직임. 기업이 대표적인 조직임.
  - 재단(foundation)은 일정한 자산을 보유하고 자산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반으로 정관이 명시하는 방향 하에서 이사회가 구체적인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임. 영리재단/비영리재단 또는 정부/민간재단이 다양하게 존재함.

그림 1 비영리민간재단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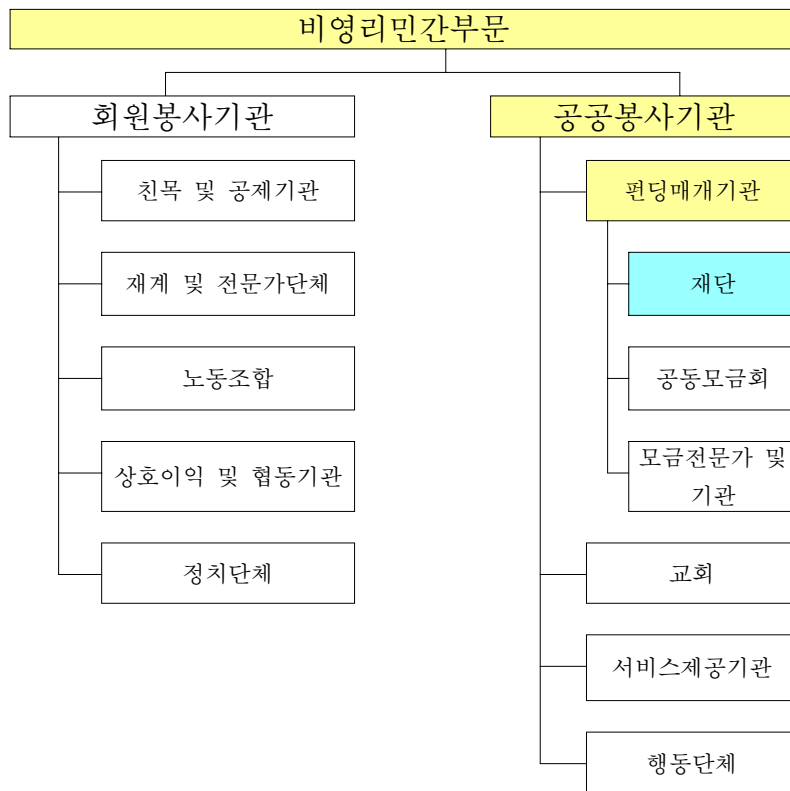


- 비영리민간재단의 개념은 현대사회에서 정부나 기업의 조직과 대비되는 비영리민간부문(제3섹터)의 다양한 조직들과의 대비를 통해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부문은 크게 노동조합처럼 회원을 위해 봉사하는 **회원봉사조직**과 흔히 시민운동단체로 이해되는 행동단체와 같은 **공공봉사기관**으로 구성됨.
  - 공공봉사기관은 다시 재단과 같이 타단체에 공여를 통해 간접적으로 공공복리에 기여할 수 있는 조직과 직접적인 서비스(대표적으로 시민운동단체)를 제공하는

조직으로 나눌 수 있음.

- 본고에서의 비영리민간부문은 공공봉사기관을 의미함.
- 재단은 대표적인 펀딩매개기관으로서 자금지원(grant-making)을 통해 또한 그 정치적 중립성으로 인한 신뢰에 기반해 제반 비영리민간부문의 활동 방향에 큰 영향력을 갖고 있음.

그림 2 비영리민간 부문의 구성과 재단의 위치



자료: Lester M. Salamon 2000

### ☑ 유럽에서 재단이 태동함

- 사회기관의 의미로서의 재단의 역사는 플라톤의 아카데미나 알렉산드리아의 도서관 등이 존재했던 고대사회로까지 거슬러 올라감.
- 중세의 재단은 고아원, 병원, 학교, 대학을 포함한 의료, 교육,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종교기관과 동일시되었으며, 재단의 운영자는 성직자 및 귀족들이었음.
  - 봉건적 질서와 규범 하에 의료, 사회, 교육서비스를 전달하는 전형적인 제도적 메커니즘이 재단이었음.
- 재단 (foundation) 및 자선적 기부 (philanthropy)의 부흥기라고 불리는 시기는 상



업 및 금융이 발달했던 중세후반, 그리고 산업혁명에 뒤따르는 19세기 후반으로서 부르조아가 지배적인 기부자로서 등장함.

- 유럽에서의 재단의 발전 폭은 제한적이었음
  - 프랑스와 오스트리아는 20세기까지 국가로부터 많은 규제를 받았음.
  - 대부분의 유럽의 재단들은 20세기 이후 40여 년 동안 인플레이션, 전쟁, 파시즘 체제 등 정치적·경제적 혼란으로 재단의 형성발전을 위한 여건이 좋지 않았음.
  - 강한 교회의 권위와 정부의 행정력이 전통인 유럽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 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발달함.

### ☐ 미국에서 비영리민간재단이 꽃피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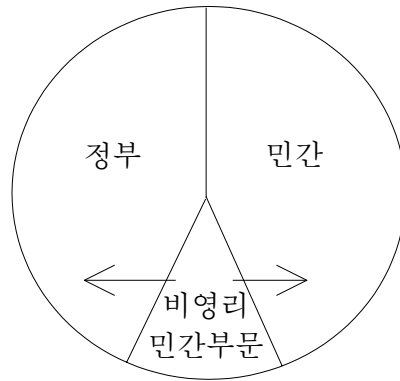
- 1789년 미국헌법 제정 이후, 비영리 및 자원조직들이 활발하게 조직되기 시작함.
  - 미국 독립전쟁(1775-83)에 즈음한 산업의 발전, 도시 및 마을의 확대, 인구의 팽창 등과 같은 사회적 경제적 변동과 미국 독립전쟁으로부터 야기된 애국심의 고양 및 제2차 대각성 운동(Second Great Awakening, 교회세속화를 반발하여 일어난 복음주의적 신앙부흥운동)을 통한 종교적 열정과 같은 문화적 변동이 그 배경이 됨.
  - 독립전쟁 후의 경험을 통해 얻은 기술혁명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19세기 국가 산업과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업가들로 하여금 교육, 과학연구, 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대해 새로운 국가적 관심과 필요성에 눈을 돌리게 하였음.
  - 미국의 자유주의 전통은 유럽의 군주독재나 관료지배가 미국사회에 자리잡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의미에서의 자발적인 사회서비스기관의 활발한 역할을 가져오게 함.
- 미국의 재단들은 20세기 초 이후 체계적이고 조직화된 자선적 기부(philanthropy)의 흐름을 주도하게 됨.
  -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에 급속히 발전한 미국의 산업자본가들의 도래는 포드 재단(Ford Foundation), 카네기재단(Carnegie Foundation)이나 록펠러재단(Rockefeller Foundation) 등 거대재단을 탄생시킴.
  - 전통적인 자선의 접근방법, 즉 사회적 고통과 문제들을 단순히 감소시키는 대증요법 보다는, 이들 문제를 발생시키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해결책을 제시함.
  - 미국의 재단은 축적된 부를 미국적인 독특한 방식으로 재분배하는 의미를 갖는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함.

- 미국의 재단은 국가적 사회복지시스템의 미발달과 사회서비스 지출의 낮은 수준에 대응하면서 이를 보완한다는 의미에서, 일반 대중들의 삶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

**▣ 비영리민간부문(제3섹터)과 비영리민간재단의 존재 의의**

- 비영리민간부문: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에 대한 대안
  - 화폐가치에 기반한 시장이 사회의 공동이익과는 상충될 수 있다는 것이 ‘시장의 실패’라는 이론임.
  - 반면, 이해관계가 상이한 다양한 그룹 또는 개인들의 합의과정을 거쳐야 하는 정부 또는 공공부문이 필요한 자원조달과 서비스제공을 적시에 제공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실패’ 이론도 존재함.
  - 이처럼 기업들의 활동이 주축을 이루는 시장, 정부를 중심으로 한 공공섹터 그 어느 쪽에서도 담당할 수 없는 공익서비스를 담당하는 주체로서 비영리민간부문 또는 제 3섹터가 존재의의를 갖으며 최근 들어서 급속히 성장해왔음.

**그림 3 비영리민간부문의 확장**



- 비영리민간재단: 비영리민간부문의 재무성
  - 비영리민간재단은 큰 규모의 기금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사업자금을 제공할 수 있어 비영리민간부문에서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서 비영리민간부문의 재무성이라고 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재단은 사업영역을 정하고 각 사업들에 대한 지원사업(grant-making)을 통해 일정한 자원배분의 역할을 함.
  - 자원배분의 역할을 통해 비영리민간재단은 정부와 시장이 실패하거나 간과하는 분야를 지원하며(보완 역할) 때로는 공공부문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방향타의 역할)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재단이 국가의 과학기술발전에 대해 갖는 의의

- 과학기술은 그 성과가 지식이라는 보편적인(non-exclusive) 산물로 귀결되기 쉽기 때문에 대표적인 공익분야에 속하여 치열한 국가간/기업간 경쟁하에서 정부와 시장이 방치하기 쉬운 분야임.
  - 산업체나 정부가 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지원을 하는 일부 분야 외에는 인류의 보편적인 이익을 실현할 수 있음에도 미처 방치되고 있는 분야들이 있음.
  - 또한 직접적인 사회복지실현효과를 얻을 수 있는 다른 공익 분야와 비교했을 때 그 효과의 실현이 장기간 후에나 얻을 수 있어서 자원투입경쟁에서 다른 공익 분야에도 상대적으로 뒤질 수 있음.
- 비영리민간재단은 그 재원을 바탕으로 기업과 정부가 지원하기 어려운 과학기술분야를 지원할 수 있는 제3의 자금원 역할을 할 수 있음.
  - 비영리민간재단의 지원으로 얻어지는 과학기술발전업적은 그 자체로는 인류보편적인 이익으로 귀속되지만 연구수행 또는 연구지원 과정에서 확보된 인력과 그 인력에 체화된 지식은 국가의 소중한 자원이 됨
  -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연구로 미처 인식되고 있지 못한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지원활동과 그에 따른 성과제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음(정부/기업과의 경쟁관계).
  - 국가적으로 필요한 과학기술연구로 인식된다 할지라도 국가의 예산제약은 필요한 연구를 지원하지 못하는 분야에서도 민간재단이 기여할 수 있음(보완관계).
- 비영리민간재단은 정부나 기업 어느 편에도 서있지 않은 객관적이고 유연한 위치에서 새로운 산·학·연의 공동연구 활동을 조직할 수도 있음.
  - 정부가 추진하는 산·학·연은 제도의 경직성으로 인해 형식화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비영리민간재단은 제도의 틀에 구속받지 않고 자체의 정보네트워크를 활용한 효율적인 산·학·연 공동연구를 지원할 수 있음.





2

##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과 과학기술지원

### ☑ 규모와 다양성에서 세계를 이끌고 있는 미국의 재단

- 미국의 재단센터(Foundation Center)에 따르면 재단의 수가 66,000개, 지원금액은 30B\$, 재산금액은 477B\$에 이릅니다. (2003년 기준)

표 1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의 전체규모와 유형별 규모(2003년 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규모지표	총계	독립재단	기업재단	시민사회재단	운영재단
재단의 수	66,398 (100)	58,991 (88.8)	2,549 (3.8)	699 (1.1)	4,159 (6.3)
지원금액	30,310 (100)	22,568 (74.5)	3,466 (12.4)	2,532 (8.4)	1,744 (5.8)
재산금액	476,713 (100)	399,138 (83.7)	15,447 (3.2)	34,153 (7.2)	27,975 (5.9)
기부금수령액	24,858 (100)	15,846 (63.7)	3,234 (13.0)	3,476 (14.0)	2,302 (9.3)

자료: The Foundation Center. 2005. Foundation Growth and Giving Estimates: 2004 Preview

- 미국의 두드러진 특징은 개인의 출연자산에 기반한 독립재단의 규모가 여타의 재단을 압도하며 저명한 미국의 재단이 이러한 독립재단들이라는 것임. (재단의 유형은 아래 표 2)
  - 독립재단은 전체 재단수의 90%, 지원금액의 75%, 재산금액의 약 84%에 이릅니다.
  - 독립재단은 출연자의 철학에 따라 다양한 사업이 가능하므로 미국의 재단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기반임.
  - 독립재단의 설립에는 성공한 기업가의 거액의 기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미국 재단의 큰 특징을 보여줌.
  - 이에 반해 유럽의 재단은 많은 기부자들의 출연이나 기부에 의존하는 시민사회 재단이 주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음.



표 2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의 유형(2003년 기준)

재단의 유형	주요특징
독립재단 (Independent Foundation)	한 사람이나 몇 사람이 기부한 출연금(endowment)에서 비롯된 이자로 지원금(grant)을 제공함
기업재단 (Corporate Foundation)	개인이 아닌 기업이 출연금을 낸다는 점에서 독립재단과 다름
시민사회재단 (Community Foundation)	지역에서의 다양한 자선기금을 집중 관리하여 규모의 경제와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함
운영재단 (Operation Foundation)	지원금은 별로 제공하지 않는 대신, 직접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시민운동단체와 유사한 점이 있음

자료: 조성표 · 조성한 · 김진상. 2003.

**☐ 다양한 목적사업을 펼치고 있는 미국의 재단**

- 사업비에서도 교육(24.5%)을 필두로 보건, 인력개발(19.5%)에서 종교(2.4%), 과학기술(2.4%)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음.

표 3 목적사업 유형별 지원금과 지원사업수(2003년 기준)

목적사업의 유형	금액(M\$)	%	지원사업수	%
예술, 문화	1,790	12.5	17,881	14.8
교육	3,506	24.5	24,531	20.3
환경, 동물	892	6.2	7,393	6.1
보건	2,798	19.5	14,604	12.1
인력개발	2,232	15.6	30,960	25.6
국제문제, 개발, 평화	361	2.5	2,562	2.1
민권, 지역개발	1,826	12.7	15,674	13.0
과학기술	347	2.4	2,178	1.8
사회과학	219	1.5	1,334	1.1
종교	340	2.4	3,498	2.9
기타	13	0.1	106	0.1
전체	14,323	100.0	120,721	100.0

자료: The Foundation Center. 2005. Foundation Giving Trends: Update on Funding Priorities.

- 각 사업영역에서 전문화된 재단들이 존재함
  - 전체사업의 지원금액에서 TOP 3 지원재단은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Lilly Endowment, Ford Foundation임. 특히 Microsoft의 Bill Gates가 설립한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은 90년대 중반 이후에 설립되어 재단의 지

원활동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음.

- 위 세 재단은 규모가 큰 만큼 세 분야 이상의 목적사업지원규모에서도 TOP 3에 속하고 있음.
- 위 세 재단을 제외하면 각 목적사업 분야의 TOP 3는 다양한 재단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미국의 재단들이 사업목적별로 다양하게 조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음.
- 예컨대, HP의 창립자인 David Packard가 창립한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는 과학기술분야와 환경분야에 집중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음.

표 4 목적사업 유형별 top 3 지원재단과 지원금액(2003년 기준)

(단위 : M달러)

목적사업의 유형	First	Second	Third
예술, 문화	Skirball Foundation (84)	Andrew W. Mellon Foundation (77)	Annenberg Foundation (70)
교육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384)	F.W. Olin Foundation (107)	Lilly Endowment (93)
환경, 동물	Gordon and Betty Moore Foundation (62)	Pew Charitable Trusts (44)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39)
보건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611)	Robert Wood Johnson Foundation (274)	California Endowment (104)
인력개발	Moody Foundation (116)	Annie E. Casey Foundation (76)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49)
국제문제, 개발, 평화	Ford Foundation (76)	John D. and Catherine T. MacArthur Foundation (39)	William and Flora Hewlett Foundation (21)
민권, 지역개발	Ford Foundation (180)	Lincy Foundation (79)	Lilly Endowment (66)
과학기술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42)	Robert A. Welch Foundation (26)	Alfred P. Sloan Foundation (21)
사회과학	Freeman Foundation (35)	Ford Foundation (30)	Charles B. Wang Foundation (15)
종교	Lilly Endowment (68)	Arthur S. DeMoss Foundation (21)	Maclellan Foundation (16)
전체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 (1,182)	Lilly Endowment (462)	Ford Foundation (431)

주 : ( )는 금액임.

자료: The Foundation Center. 2005. Foundation Giving Trends: Update on Funding Priorities.

**☑ 전문적인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민간재단이 활발하게 활동함**

- 덩치 큰 지원사업(grant)의 유무로 인해서 변동폭이 크지만<sup>1)</sup> 적어도 전체 재단의 지원사업금액의 약 3% 이상은 과학기술분야연구를 위해 쓰여지고 있음.

1) 변동폭이 큰 예로서 Bill and Melinda Gates Foundation을 들 수 있음. 이 재단은 과학기술부문에 2001년 24.7M\$, 2002년 105M\$을, 2003년에는 10M\$에도 못미치는 지원을 함



표 5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의 과학기술부문지원금액

(단위 : M달러,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과학기술부문지원금액	369	412	414	489	568	346
전체지원액에서의 비율	3.8	3.6	2.8	2.9	3.6	2.4

자료: The Foundation Center. 2005 and 2004. Foundation Giving Trends: Update on Funding Priorities.

- 과학기술지원에 특화한 재단이 존재함
  -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Robert A. Welch Foundation, Alfred P. Sloan Foundation, W.M. Keck Foundation은 과학기술을 재단의 주요목적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대표적인 재단들임.
  - 과학기술분야지원 재단들은 과학기술분야의 특성상 시설기자재구입과 연구활동 분야에 대한 지원이 주요활동임.

표 6 과학기술부문 지원금액에서의 상위순위의 미국의 비영리민간재단

(단위: M달러, 사업수)

순위	2002			2003		
	재단명칭	지원 금액	지원 사업수	재단명칭	지원 금액	지원 사업수
1	Bill & Melinda Gates Foundation	105	3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42.2	27
2	W.M. Keck Foundation	55.1	18	Robert A. Welch Foundation	24.6	165
3	Lily Endowment	50	1	Alfred P. Sloan Foundation	20.9	167
4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	49.6	71	Wallace H. Coulter Foundation	12.9	6
5	Alfred P. Sloan Foundation	27.7	168	Kresge Foundation	12.4	15
6	Robert A. Welch Foundation	24.4	145	W.M. Keck Foundation	10.2	13

자료: The Foundation Center. 2005 and 2004. Foundation Giving Trends: Update on Funding Priorities

- David and Lucile Packard Foundation은 특히 해양과 환경과 관련된 과학기술연구분야를 적극 지원하고 있음.
- W.M. Keck Foundation은 Keck Observatory라는 거대천문학관측시설의 주요 스폰서의 역할을 하는 등 기초과학분야에서의 활발한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음. (다음 페이지 상자글 참조)
- 과학기술분야의 재단들은 전문화된 인력을 두고 과학기술분야 연구의 프로포잘 심사 연구자금지원을 수행함.



## The W.M. Keck Foundation - 과학기술지원을 선도하는 재단

- 창립연도 : 1954
- 창립자 : W.M. Keck (1900-1964)
- 목적 : 과학(의학포함)연구와 교육에 대한 지원
- 자산규모 : 6,802 Million dollars(2003년 기준)
- 지원자금(grant-making) : 45백만달러 (과학분야 지원: 10백만달러), 30개의 사업(grants) (2003년 기준)
- 대표적인 지원성과 : Keck 관측소 (Keck Observatory) 건립  
 1993년과 1996년 하와이의 마우나 키 화산 (Mauna Kea) 인근에 각각 10m 직경의 대형망원경을 건설하여 지상망원경으로는 획기적인 관측시스템을 갖추. 각각의 망원경은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도 각각 컴퓨터에 의해 통제되는 조각거울들 결합하는 새로운 방식을 채용했으며 관측기법에서도 빛의 산란을 보정해주는 adaptive optics라는 기법을 도입하여 전통적인 방식의 85m 직경의 망원경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둠. Keck 재단은 이 관측소 건립을 위해 144 백만달러를 지원했음. Keck 관측소의 망원경의 직경은 현재 지상최대규모임. (단일 거울로서의 최대 망원경은 역시 하와이 만들어진 Subaru 망원경(직경 8m, 일본정부가 후원)임.
- 재단의 역사 : 재단을 설립한 W.M. Keck은 1921년 Standard Oil Company를 세워서 당시 로선 가장 큰 독립석유회사로 키운 자수성가사업가임. 그는 다양한 발명을 도입해서 석유채굴의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였음. 그는 새로운 시도나 발명, 과학의 연구에 대해서 항상 열정적이고 개방적이었으며 자신의 노력이 에너지문제를 해결해서 미국의 복지에 기여한다는 신념을 갖고 있었음. 1954년 처음 재단을 설립했을 때는 병원지원으로 시작했지만, Keck의 아들인 Howard Keck에 이르러 Keck가의 토지를 기부해서 250백만달러의 재산규모를 현재의 1,200백만달러 규모로 키우고 과학분야에 대한 대규모의 지원을 함. Keck재단은 미국의 대표적인 기초과학지원기관인 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나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도 미처 지원하지 않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나 새로운 시도를 높이 평가하고 지원함. 모든 지원과제를 지원할 수는 없지만 모든 지원과제를 충분히 심사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과제심사능력을 갖춘 내부/외부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음. Howard Keck은 또한 재단에서 가족의 참여를 최대한 배제하고 전문가들에게 재단운영을 맡겨서 재단의 공공성을 크게 증진 시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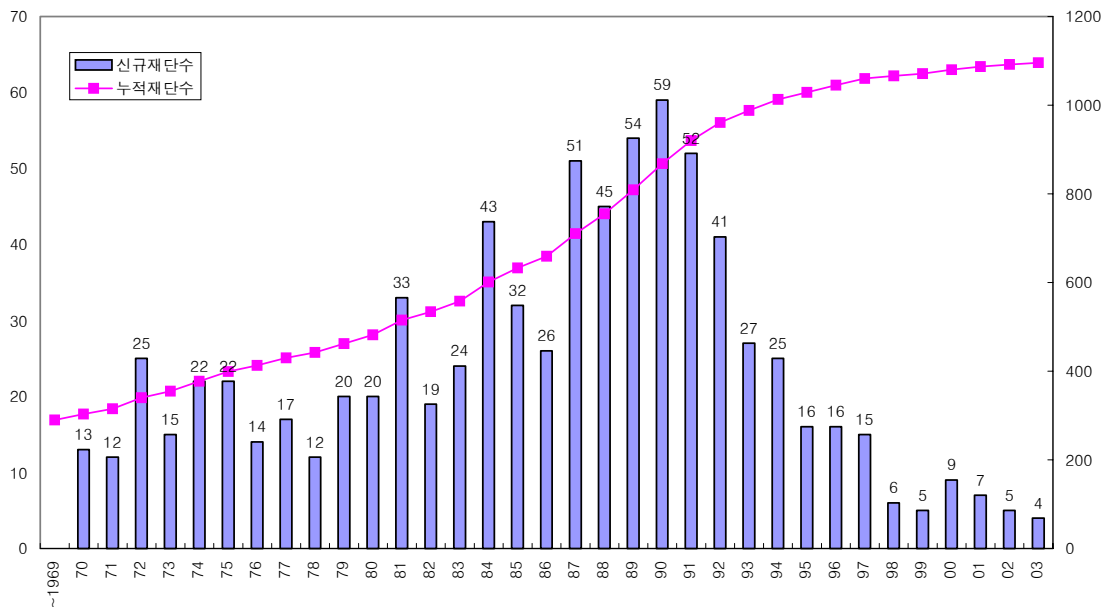
3

## 일본의 비영리민간재단과 과학기술연구 지원

### ▣ 재단의 규모나 지원사업의 규모는 미국에 비해 아주 적음

- Japan Foundation Center에 따르면 2003년 1,087개의 조성재단 (助成財團 또는 grant-making foundation)들이 있음.<sup>2)</sup>
  - 일본의 통계는 비영리민간재단에 대한 별도의 통계가 아니라 비영리부문의 사업을 지원하는 조성재단에 대한 통계임.
  - 1990년 연간 최대 규모인 56개의 신규재단이 설립된 이후 신규재단의 설립규모는 감소했음. 이는 80년대 경제호황과 더불어 재단설립도 활발했으나 90년대 이후 일본의 경제가 침체되면서 재단설립도 줄었음을 보여줌.

그림 4 일본의 조성재단(grant-making foundation)의 수의 추이



자료: Japan Foundation Center 일본조성단체의 현황(2004) (www.jfc.or.jp)

2) 위 재단들은 적어도 질문에 응답한 적인 있는 재단들로서 Japan Foundation Center는 이들을 그룹A로 구분함



- Japan Foundation Center에 따르면 보다 구체적인 데이터조사가 가능했던 638개의 재단들<sup>3)</sup>의 총자산은 1.6조엔임. (2003년 3월 기준)
  - 이러한 자산규모는 한국 재단들의 자산규모(2002년 기준 2조3천억원)에 비해서는 상당히 크지만 미국(2002년 기준 4350억달러)에 비해서는 아주 적은 수준임.

표 7 일본의 재단의 규모(2003년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재단의 수	비중	전체 자산(100M엔)	비중
0.5B엔 이하	164	26	470	3
0.5B엔 이상 1B엔 이하	147	23	1,042	7
1B엔 이상 3B엔 이하	217	34	3,574	22
3B엔 이상 10B엔 이하	86	13	4,513	28
10B엔 이상	24	4	6,387	40
계	608	100	15,986	100

자료: Japan Foundation Center. 일본조성단체의 현황(2004) (www.jfc.or.jp)

- 자금지원(grant-giving)의 규모는 크지 않음
  - 조사대상인 638개 재단의 지원금액은 2003년 기준으로 약 500억 엔으로서 한국의 기업재단의 총지원금액과 비슷한 규모임(전경련 2004).<sup>4)</sup>
  - 그러나 미국의 2003년 기준 14B달러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음.
  - 이는 일본의 개인기부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임. 미국은 개인기부가 전체기부금액의 80%를 상회하지만 일본은 5%에 못 미침.(미쓰이 조사리포트 2005)
  - 영리추구기업인 기업은 대규모 기부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인의 거액기부가 활발하지 못하면 기부금액 전체규모는 작을 수밖에 없음.

표 8 일본의 재단의 자금지원규모(2003년 회계연도 기준)

지원금액(억엔)	재단의 수	비중	지원금액(억엔)	비중
~0.25	335	53	44	9
0.25~0.50	155	24	55	11
0.5~1.50	100	16	85	17
1.5~5	35	5	100	20
5~	13	2	215	43
계	638	100	499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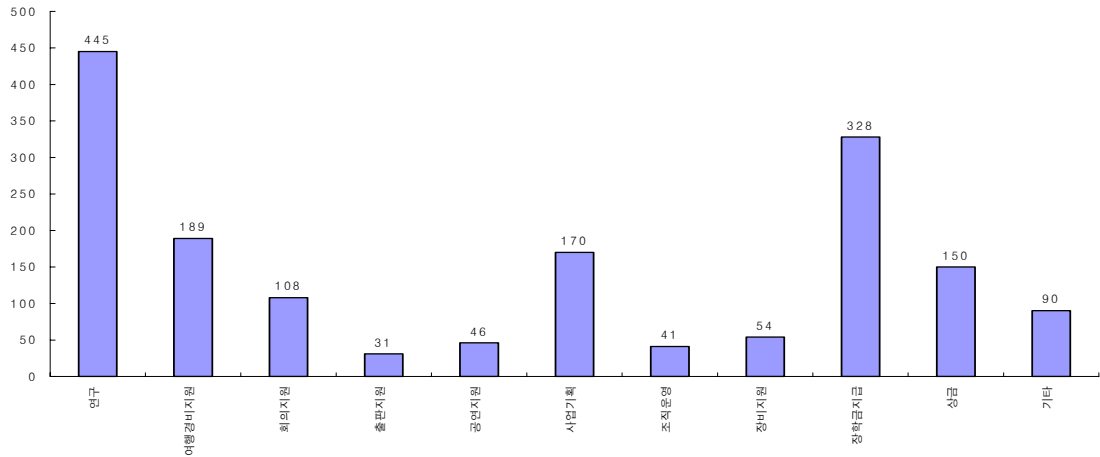
자료: Japan Foundation Center. 일본조성단체의 현황(2004) (www.jfc.or.jp)

3) 이 재단들은 update data를 지속적으로 제공한 재단들로서 Japan Foundation Center는 이들을 그룹B로 구분함  
 4) 한국의 경우는 아산재단 등이 중심이 되 펼치는 의료활동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전체 지원금액의 약 60%)를 차지함.

☐ 연구지원, 특히 과학기술 연구지원이 활발함

- 일본 재단의 주요한 특징들 중 하나는 연구에 대한 지원사업이 많다는 것임.
  - 전체 1,440개의 지원사업(grant)중에서 연구지원의 수(445개)가 가장 많음. 이는 일본의 지원사업이 학술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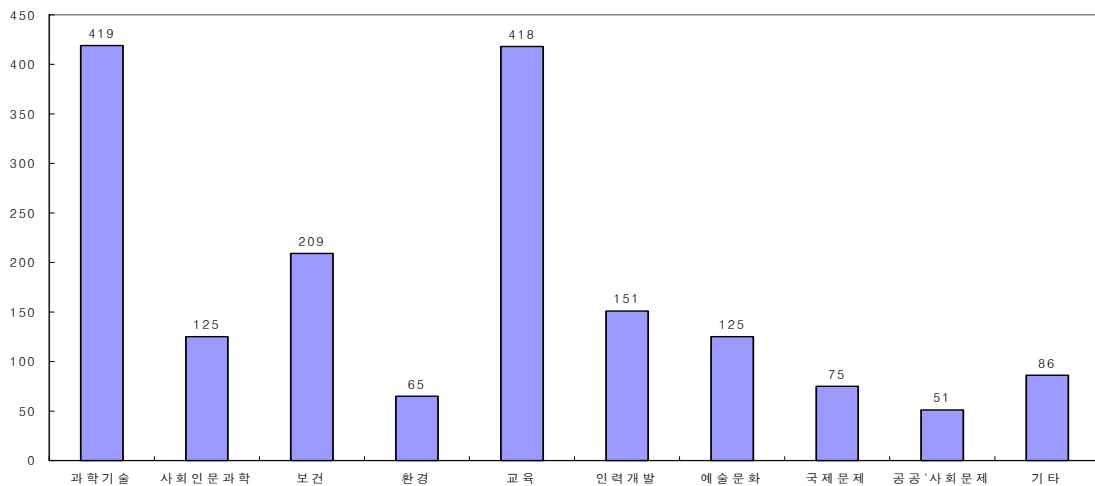
그림 5 일본의 조성재단(grant-making foundation)의 지원사업의 분포



자료: Japan Foundation Center 일본조성단체의 현황(2004) (www.jfc.or.jp)

- 특히 과학기술분야 지원이 활발해서 과학기술분야 지원사업(grant)이 전체 1,635개 지원사업의 약 1/4에 이룸.

그림 6 분야별 지원사업(grant)의 수와 비중



자료: The Japan Foundation Center. 일본조성단체의 현황(2004) (www.jfc.or.jp)



- 과학기술연구지원에 특화된 재단들이 존재함
  - 자산규모 20위내에 재단들과 Japan Foundation Center의 홈페이지에 링크된 재단들 중에서 과학기술분야 지원을 중점사업으로 하는 재단들은 아래 표와 같음.

표 9 일본의 주요 과학기술지원 재단들의 현황(2003년도 결산 기준)

자산규모 top 20에서의 ranking	이름	사업내용	자산규모 (B엔)	지원금액 (M엔)	비고
3	Inamori Foundation	과학을 비롯한 학술연구지원	64.4	200	kyocera의 Inamori회장이 창립
8	Sumitomo Foundation	환경, 문화, 기초과학 지원	20.0	345	Sumitomo Group이 설립
9	Mitsubishi Foundation	기초과학, 인문학, 사회복지를 지원하나 기초과학의 비중이 높음	19.8	459	Mitsubishi그룹이 설립
17	Asahi Glass Foundation	화학분야 연구지원	11.9	355	Asahi Glass Co.가 설립
	Uehara Memorial Foundation	의약품 연구와 국민건강복지 지원	6.5	574	大正製藥사장이 건립
	Kansai Research Foundation	Kansai(関西)지역의 전기공학 연구활동 지원	2.1	500	
	Mitstani Foundation for Glycoscience	당(糖)과학 연구지원	1.5	70	Seikagaku Foundation의 회장이 설립
	Kurita Water and Environment Foundation	수질환경 연구지원	1.0	0.3	
	Fuji Foundation for Protein Research	단백질 연구 지원	0.4	6	
	Majak Foundation	기계·로봇분야 연구지원	0.4	7.1	Yamajaki Majak corp가 설립
	Noda Institute for Scientific Research	발효식품에 대한 연구지원	0.3	1.5	Noda Soy Sauce (Kikkomen) Co.가 창립

자료: The Japan Foundation Center. 일본조성단체의 현황(2004) (www.jfc.or.jp)와 각 재단의 연례보고서

- 과학기술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재단들 중 자산규모 상위 4개 재단은 전체 재단들 중에서도 Top 20에 속해,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이 활발함을 알 수 있음.
- 또한 위 표에 열거된 재단들은 사업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양한 과학기술분야를 지원하고 있음.

4

## 한국의 비영리민간재단과 과학기술지원

### 4.1 아직은 형성기에 있는 비영리민간재단

#### ☐ 수와 지원금액에서 소규모임

- 재단연구회(www.foundation.or.kr)의 데이터베이스에는 3,000개 정도의 재단들의 리스트가 있음(영리/비영리, 민간/정부 모두).<sup>5)</sup>
-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줄여서, 『사회공헌백서』)의 조사에 응한 75개 재단 중에서 한국의 비영리민간재단의 주류를 이루는 기업재단의 수는 62개에 불과함<sup>6)</sup>

표 10 『사회공헌백서』에서 조사한 공익재단들의 유형

기업재단	개인재단	기타	계
62	11	2	75

자료: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의 부록에 열거한 재단자료에서 집계함

- 『사회공헌백서』에서 조사한 재단들의 주축을 이루는 기업재단의 자산 총액은 2조 3,442억원이고 지원금액도 2003년 약 5,310억원에 불과함(2003년 기준).
  - 2003년 미국에서 가장 많은 지원사업을 한 Gates Foundation은 1.2조달러를 지원했으며 두 번째인 Lilly Endowment도 4,622억달러를 지원해서 한국의 대표적인 재단들의 총지원금액이 미국의 한 개 재단의 규모와 비슷한 수준임.
- 기업재단이 아닌 비영리민간재단 중 주목할 만한 재단은 <아이들과미래>, <아름다운재단> 등 10여개 이내임
  - 기업재단이 아닌 한국의 비영리재단은 미국의 독립재단(independent foundation)보다는 다수의 기부자에 의존하는 시민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의 성격을 많이 띤.
  - <아름다운재단>은 한국에서 최초의 시민사회재단을 표방하고 창립된 이래, 1%

5) 한국에서의 재단등록은 중앙정부의 소관부처와 지자체에 분산되어 이루어져 체계적인 공식통계가 없고 미국의 Foundation Center와 같은 민간단체가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지 않고 있어 비영리민간재단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움

6) 기업재단의 수는 전국경제인연합에서 2003년 발행한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에서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125개중 응답한 76개중 기업단독 또는 기업가와의 공동으로 창설한 재단임.



모금운동 전개, 전문화된 운영조직, 투명한 회계 등 여러 측면에서 모범적인 재단활동을 전개하고 있음.

- <아이들과미래>는 KTB네트워크, 다음커뮤니케이션, 버추얼텍 등 최근 성장한 벤처관련기업들이 기업이익의 사회환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출연함.

표 11 기업재단외의 대표적인 비영리민간재단과 지원금액(2003년 기준)

(단위 : 백만원)

재단명	설립연도	주요사업 또는 특징	지원사업금액 (자본금)
아름다운재단	2000.8	공익을 위한 다방면의 사업을 지원하며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의 비중(25%이상)이 상대적으로 높음	166.7
아이들과미래	2000.3	청소년 사회복지, 대표적인 벤처기업들이 출연	98.2(5,000)
환경운동재단*	2002.10	환경운동 시민운동 단체에 대한 재정 지원	93.7
시민운동지원기금	1994.11	시민운동단체를 지원하는 국내최초의 민간 기금	미공개

주\*: 환경운동재단의 2004년 지원사업비는 2003년에 비해 대폭 증가해 379.5백만원을 기록함

☑ 재단의 지원사업의 종류가 장학사업에 치우침

- 장학금지원사업에서 출발한 재단이 많고 최근도 장학금지급을 중심으로 한 장학학술 분야의 참여율이 80%를 상회함
- 장학금지급은 한국의 기초 공교육이 일정하게 개인부담에 의존해야 했던 과거의 시대상황에서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했었으나, 공교육 기회가 확대되어 있는 지금 상황에서는 비영리민간재단의 사업영역이 너무 치우친 측면이 있음.

표 12 비영리민간재단의 분야별 참여율 (『사회공헌백서』의 조사대상에서)

(단위: 개수, %)

주제별 분야	2002년	2003년
사회복지	19(25.3)	20(27.0)
건강의학	5(6.7)	4(5.4)
스포츠	1(1.3)	1(1.4)
교육	10(13.3)	9(12.2)
장학·학술연구	61(81.3)	60(81.1)
예술문화	14(18.7)	14(18.9)
환경보전	2(2.7)	2(2.7)



유적전통문화보전	3(4.0)	4(5.4)
지역사회 발전	3(4.0)	3(4.1)
국제교류 협력	8(10.7)	7(9.5)
재해복구 예방	7(9.3)	5(6.8)
기타	20(26.7)	19(25.7)

자료: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p. 250

**☐ 재단의 지원금액은 건강의학에 치우침**

- 사업비에서는 건강의학이 총집행액의 60%를 넘어서는 쏠림현상이 있음.
  - 이는 아산재단과 등의 병원사업과 관련된 기부가 한국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임.
  - 학술연구지원은 한정적이어서 장학사업을 포함한 장학학술지원이 전체사업비의 10%에 못 미쳐, 많은 재단들이 장학·학술사업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실제 지출액은 별로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음.

**표 13 비영리민간재단의 사업분야별 지원금액 (『사회공헌』의 조사대상에서)**

(단위 : 백만원, %)

	2002년	2003년
사회복지	35,10719(7.9)	59,355(11.2)
건강의학	304,073(68.3)	335,091(63.1)
스포츠	2(0.0)	13(0.0)
교육	4,540(1.0)	4,861(0.9)
장학·학술연구	48,046(10.8)	48,475(9.1)
예술문화	38,626(8.7)	67,554(12.7)
환경보전	695(0.2)	585(0.1)
유적전통문화보전	244(0.1)	155(0.0)
지역사회 발전	317(0.1)	309(0.1)
국제교류 협력	5,823(1.3)	6,030(1.1)
재해복구 예방	734(0.2)	1,819(0.3)
기타	7,249(1.6)	6,756(1.3)
계	445,456(100.0)	531,001(100.0)

자료: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p. 247

**☐ 과학기술에 대한 지원은 아직 미약하지만 관심이 커지고 있음**

- 과학기술부문에 대한 지원을 하는 비영리민간재단은 역사나 규모에 있어서 아직은 시작 단계임.
  - 과학기술부를 주무관청으로 두고 있는 비영리민간재단은 26개임(2005년 8월기

준). 이중에서 6개의 재단이 2002년이후에 등록함.

- 26개의 비영리재단 중에서도 다른 기관이나 사람을 지원하는 목적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은 10여개임.
- 자체연구활동을 수행하는 연구재단이 11개 정도임. (계면과학연구소, 목암생명과학 연구소, 포항산업과학재단 등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대표적인 연구 재단임)

**표 14 주요 과학기술부문 자금지원(grant-making) 비영리민간재단**

	설립일	주요사업	기금규모	지원사업금액
1	가현과학기술재단*	장학금지급(이공계대학생등 포함), 과학기자재지원, 연구비지원	38억원 (2002년)	1.4억원 (2003년)
2	한국간연구재단	한국간연구소에 연구비지원	60억원 (2004년)	2.5~3억원 (매년평균)
3	봉은재단	염료화학관련 연구비 지원	NA	NA
4	해동과학문화재단	이공계 학술지원, 발전기금지원	152억원 (2003년)	NA
5	한국유전자이식연구재단	연구비지원	4억원 (2004년)	0.12억원 (2004년)
6	대성해강과학문화재단	과학기술연구단체및 연구자 지원, 대성그룹과 연계됨	10억원	0.3억원 (2004년)
7	홍곡과학기술문화재단	과학기술문화연구조사, 연구성과의 이전, 국제교류	NA	NA
8	장영실기술문화재단	과학기술연구역량배양, 과학교육진흥, 과학기술 국제교류	NA	NA
9	일운과학기술재단	(주성엔지니어링 회장이 설립)	NA	NA

주\*: 가현과학기술재단은 신도리코장학회와 함께 신도리코문화재단으로 통합됨

자료: 과학기술부 등록 비영리 공익법인 (www.most.go.kr)와 개별재단에 대한 인터뷰

- 과학기술부문을 지원하는 재단들의 지원규모는 작으며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아주 한정되어 있고 과학기자재 지원, 장학금 지급이 주요 사업내용인 경우가 많음.
  - 역대를 넘는 지원사업 규모인 재단은 가현과학기술재단(최근 신도리코문화재단으로 변경됨)과 한국간연구재단 두 곳에 불과함.
  - 가현과학기술재단은 장학사업과 기자재지원 활동을 해왔음.
  - 한국간연구재단은 간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인 김정룡박사가 기금조성등을 주도했으며 한국간연구소의 연구활동지원이 주요사업임.
- 최근 민간부문에서의 과학기술분야 지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
  - 최근 황우석 교수를 지원하는 개인후원회가 등장함.<sup>7)</sup>

7) 2004년 4월 결성된 후원회를 주도한 김재철 동원그룹회장은 뜻있는 인사들과 함께 황우석교수의 연구가 세계적인 주목을 끌기 훨씬 전인 2000년부터 황우석교수를 지원해왔음 (조선일보 2004년 4월 21일자)



- 최근 과학기술지원을 목표로 하는 재단들이 등장하고 있음 (2002년 이후 6개의 재단이 새로 만들어짐).
- 포항공대설립은 포스코(구 포항제철)이라는 기업이 학교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거액의 후원금을 출원함 (포스코 및 계열회사가 약 8,000억원을 학교법인에 출자했음).

## 4.2 재단이 활성화되어가는 긍정적 흐름

### ☑ 사업규모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재단의 규모와 사업비도 확장되고 있음
  - 재단평균자산은 1998년 247억원에서 2003년 340억원으로 5년 동안 40% 증가함.
  - 재단평균지원비 역시 1998년 16억원에서 2003년 72억원으로 5년 동안 450%나 증가함.

표 15 비영리민간재단의 자산금액 (『사회공헌』의 조사대상에서)

(단위 : 백만원)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조사대상재단수	70	70	73	71	73	69
평균자산	24,747	24,347	29,759	28,995	33,759	33,975
평균지원사업비	1,593	3,061	2,163	5,566	5,920	7,176

자료: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pp. 233, 241

- 기업의 기부도 확산되는 추세임
  - 1998년 기업평균 23억원에서 2002년 54억원으로 4년 동안 약 2.5배 증가함.

표 16 비영리민간재단의 기업기부금액과 사업집행액 (『사회공헌』의 조사대상에서)

(단위 : 백만원)

	1998	2000	2002
조사대상기업수	147	193	202
기업평균기부금액	2,263	3,658	5,379
총집행액	332,710	706,061	1,086,594

자료: 『2003 기업·기업재단 사회공헌백서』 p.70

### ☑ 사업도 보다 체계화·다양화하고 있음

- 전문화된 조직을 갖춘 기업재단의 수가 증가함.



- 1999년 70개 설문대상기업중 56개가 전담사무국을 두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2003년엔 74개 설문대상기업중 59개가 그렇다고 응답함.
- 기업도 사회공헌 활동을 위해 사내체제정비를 활성화하고 있음. (사회공헌백서, p. 88)
- 기업부문과 별개의 비영리민간단체도 성장함
  - <아름다운재단>, <아이들을위한재단>, <환경재단> 등이 이 최근 5~6년 사이에 시민공익재단(Community Foundation)으로 출발하여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고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음.

### 4.3 재단을 중심으로 본 비영리민간부문의 문제점

#### ☐ 기부자에서 수혜자까지의 자금 흐름

- 최초의 기부자는 재단을 거쳐서 또는 직접적으로 자금수혜자를 돕게 되나 대부분은 재단과 같은 매개 역할을 하는 기관을 거치게 됨.

그림 7 자금공여자에서 최종 수혜자까지의 단계

기부자	기부 (donation)	재단	자금지원 (grant)	자금수혜자
시민 기업 공공	일시증여 지속증여	자체 기금 외부자금 의존	경쟁방식 비경쟁방식	개인 공익단체

- 자금지원(grant)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기부(donation)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기부자나 재단의 태도나 조직문화, 그리고 양자를 둘러싼 사회제도에 모두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음.

#### ☐ 기부(donation)에서의 문제점

- 자산가들이 부를 자손에 이어주려는 문화적 측면이 강함
  - 미국의 거부들이 거대한 재산을 재단에 기부하는 미국과 달리 한국의 거부들은 아직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을 당연시하는 경향이 있음
  - 그래서 개인이 기부한 거대재산을 기반으로 재단활동을 펴나가는 사례가 아직은 한국에 없음. 현재도 재단을 설립한 기업가의 기업으로부터 꾸준히 지원을 받고



있어 한국의 재단은 미국의 독립재단 개념과는 거리가 있음.

- 과거에는 재단을 상속을 피하려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경향도 있었음.
- 소액기부자들은 안정적이고 꾸준한 기부가 아니라 ARS모금 등 일시불 형식의 일회적인 기부가 많아 그만큼 기부가 일상적인 활동으로 자리잡고 있지는 못함
  - <아름다운재단>의 기부문화연구소의 2004년 조사에 따르면 개인기부자의 연평균 기부금액은 5만7천원이며 기부자의 75%가 일시적인 기부를 하고 있으며 45%가 ARS 방식의 기부를 선호하고 있음. (www.beautifulfund.org)
- 기부문화를 사회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지 못함.
  - 기부에 대해 폭넓게 세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미국과 달리 아직 한국에서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부를 법에 의해서 한정하면서 민간자체에서 공익적인 활동을 벌이는 것을 결과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 ▣ 재단의 문제점

- 재단의 활동이 비공개적인 경우가 많음
  - 과거 기업들이 재단설립을 상속회피수단으로 악용한 바 있고 이를 막기 위하여 재단설립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음.
  - 재단운영의 자세한 내역에 대해 자발적으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재단이 많지 않음.
- 유명무실한 재단들이 많음
  - 재단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전담인력이나 사무실을 확보하지 못하고 관련 기업의 직원이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도 있어 책임 있는 운영계획이 없는 채 줄속으로 설립되어 명색만 재단인 경우도 많음.
- 전문화된 사업영역이 없는 재단들이 많음.
  - 한국의 많은 재단들이 장학금 지급을 중심으로 한 장학·학술 사업을 주요사업으로 내세우고 있는 이면에는 한국이 저개발국가였던 시절에 기본 공교육마저 못 받았던 역사적 경험의 관성임.
  - 또한 다양한 사업분야들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고도 일정한 지원실적을 쌓기 쉬운 분야(장학이나 소외계층지원)에만 한정되어 있는 측면이 있음.



## 5

## 재단의 과학기술분야 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안

## 5.1 기부 활성화를 위한 세제

## ☐ 개방형(신고주의) 기부금제도로의 전환

- 한국은 법인세법과 소득세법, 그리고 관련 부처령에 의해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를 명시하고 있는 **허가주의** 체제임.
  - 한국의 허가주의 체제에서는 세금공제혜택을 받기 위한 단체로 등록하기 위해서 관련부처와 최종적으로 재경부를 거치는 전형적인 관의 규제를 받게 되고 행정 비용이 큼.
  - 한편 한번 지정을 받은 단체들에 대한 감독은 인력부족 등으로 인해 엄격하게 이루어지기 어려움.
  - 현재 비영리민간 기구를 위해 마련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단체는 <새마을운동중앙본부>,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 관변단체들 뿐임(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04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
- 반면 미국은 등록된 비영리단체가 세금신고시 공익국세법의 관련조문인 501c(3)를 만족시키면 비영리단체로서의 자격을 유지하는 **신고주의** 체제임
  - 신고주의체제에서는 자율성이 중요시되는 비영리단체의 특성을 최대한 보장하는 한편, 세금신고과정에서 비영리단체들의 활동에 대한 사후평가를 하여 자격을 박탈하는 등 꾸준한 감독이 이루어짐.

## ☐ 기부금 공제폭 확대

- 법인세 공제와 관련, 한국의 기부금의 손금공제(지정기부금의 경우 5%)는 미국(10%)에 비해서 낮음.
  - 법정기부금과 특례기부금의 공제폭 (각각 전액, 50%)은 미국보다 높지만 상기의 두 기부금은 기부대상이 제한적임.
- 소득세에서도 한국의 지정기부금의 공제폭 (10%)도 미국의 공제폭 (50% 또는 30%)에 비해서 좁아서 보다 적극적인 공제폭 확대가 필요함

표 17 한국과 미국의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

	기부금종류	공제한도액계산	
		법인세(법인)	소득세(개인)
한국	법정기부금	전액손금산입	전액소득공제
	특례기부금	조정후소득금액 x 50%	조정후소득금액 x 50%
	지정기부금	조정후소득금액 x 5%	조정후소득금액 x 10%
미국	공익성이 강한 단체에 대한 기부금 (연방·주·정부에 대한 공공목적의 기부금을 포함)	과세소득의 10%를 한도로 손금산입	조종총소득의 50% 한도에서 소득공제
	기타공익단체에 대한 기부금		조종총소득의 30% 한도에서 소득공제

자료: 한국조세연구원 2004 <표 IV-44>

- 전경련이 실시한 사회공헌에 대한 정부지원방안 필요조사에서도 공제폭 확대 등의 세제지원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 (50%넘는 응답자가 이를 지적함). (전경련 2003)
  - 미국의 경우에도 1981년 세금공제 혜택의 5%에서 10%로의 확대조치가 기업기부활동을 촉진시킨 바 있음 (삼성경제연구소 2004)
- 개인의 정치자금 기부를 장려하기 위해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또는 손금산입하는 제도개선이 있었는데<sup>8)</sup> 이러한 방식을 기타 공익관련 기부금에도 확대하는 것이 타당함.

▣ 자발적 기부 장려의 활성화

- 과거에 비해 나아졌지만 아직도 <국가 또는 지자체기부금>,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 <정당 및 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등 전액손비처리해주는 법정기부금 등이 기업들에게 강제적이라고 여겨지는 측면이 있음.
  - 최근 조세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국방헌금·국군장병위문금품>을 낸 18개 기업 중에서 7개 기업은 자발적인 기부가 아니었다고 응답함. (손원익 외 3인, 2004)<sup>9)</sup>
  - 같은 보고서는 법정기부금 1조 3,146억원 중 4% 또는 6.3%정도가 강제적이거나 적어도 자발적이지 않은 기부금으로 추정하고 있음.
  - 같은 연구에 따르면, 1997년의 조사와 비교해서 정당 등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강제적이라고 답한 경우는 감소함. (18.8%에서 4.3%)
- 정부가 기업의 강제성기부금의 부담을 줄이고 개인의 기부를 늘이도록 유도하고

8)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04년 3월 12일)

9) 설문항목은 '완전자발적', '다소자발적', '중립적', '다소강제적', '완전강제적'으로 이루어짐



있는 점은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아직도 공권력이 암묵적으로 강제하는 기부금은 보다 더 줄어들어야 함.

- 최근의 조세특례제한법은 법인을 통한 정치자금 모집을 금지하고 개인의 후원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개정됨(2004년 3월 12일).
- 강제성기부금을 줄이고 기부의 자발적인 선택권을 넓혀 줌으로써 보다 기업의 적극적인 사회공헌을 유도할 수 있음.

## 5.2 재단설립/운영 방향

### ▣ 장학금보다는 경쟁에 의한 연구비 지원이 바람직함

-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공교육 지원이 과거와는 다르게 제도화되어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장학사업보다는 저소득층의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타당
- 학술연구지원의 대표적인 사례는 대우재단의 학술총서발행사업임 (아래 상자글 참조)
- 대학원생 또는 박사후과정의 연구자(Post-Doc)들에게 장학금지원보다는 학술연구를 수행하는데 대한 연구비를 지원하는 것이 보다 공공이익에 충실함.
  - 특히 현재 이공계 분야의 많은 Post-Doc들을 지원하는 공공자금이 매우 한정되어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한국의 비영리재단 중 가장 큰 규모인 삼성그룹 관련 재단들도 학술연구와 관련해서 자금지원(grant-making)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다만 삼성이건희장학재단이 100여명의 학생들에게 연간 5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들여서 해외 유학을 지원해주는데 머물고 있음.
- 경쟁방식에 의한 학술연구지원은 다양한 장점을 갖음
  - 연구결과는 그 자체로 공공의 이익에 기여하기 때문에 공공성의 지원이라는 비영리민간재단의 목적에 보다 충실함.
  - 연구지원 과정에서 경쟁을 거침으로 재단은 재단이 원하는 공익의 방향에 부합한 과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음.
  - 연구비는 또한 관련연구자들에게 연구의 토양을 제공해줌. 기초과학 내지는 인문학 분야가 위축되어 있고 적절한 연구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공공자금이 한정되어 있는 한국의 상황에서는 특히 민간재단이 지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연구과제 심사 역시 전문가들이 해야 하므로 관련분야 연구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음.



### 대우재단의 학술연구지원 사례

1980년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은 현 대우재단의 전신인 대우문화복지재단에 2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해서 대우재단으로 재편하고 학술사업을 주목적사업으로 설정하였음. 학술사업은 논저, 연구 번역, 공동연구 등, 상업성과는 거리가 있는 자연과학을 비롯한 기초학문연구사업을 지원해서 2004년 2월까지 총 563권의 대우학술총서발행의 성과를 얻었음. 대우학술총서시리즈는 당시 이렇다할 연구비 지원이 없었던 80년대 당시, 기초학문분야의 연구의욕을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대우그룹의 해체와 더불어 현재 대우재단의 활동은 소극적임 (삼성경제연구소(2004)에서 부분발췌)

#### ☐ 규모의 경제를 갖도록 소규모의 재단보다는 개별기부금들을 집중

- 최소한의 전담인력과 사무실을 갖출 수도 없는 규모의 재단을 만드는 것보다는 기부금들을 모으는 재단이 더 효율적임.
  - 미국처럼 거액의 개인기부자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인 재단을 만들기에는 부족한 개인기부금들을 모으는 재단이 한 대안임.
  - 개인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사용처를 미리 정하고 기부하기 보다는 보다 전문화된 조직과 체계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재단에게 그 사용을 위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가져올 수 있음.
- 이 경우 각각의 지원사업(grant)는 재단을 조성하는데 기여한 기부자들의 명의로 이루어지게 해서 기부자들에 명예를 부여케 함.
  - 현재, 아름다운재단 등 소액기부들을 모아 재단을 운영하는 시민재단의 경우 목적사업별로 기금을 조성하는 한편 출연자별 기금을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일정규모이상의 기부금의 경우 출연자별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도입할 수 있음.

### 5.3 과학기술분야 사업의 활성화

#### ☐ 과학기술기본법의 비영리법인지원과 지정기부금제도의 연계

- 과학기술기본법 제33조는 과학기술의 진흥과 학술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육성하고 정부가 지원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2005년 8월 현재, 계면공학연구소가 유일하게 육성대상비영리법인으로 과학기술부에 의해 선정됨.

- 육성대상비영리법인은 자금지원재단(grant-making foundation)과 운영재단(operation foundation)을 구분하지 않음. 계면공학연구소는 운영재단에 속함.
- 과학기술부에 등록된 재단은 20여개 남짓하며 오랫동안 체계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곳은 계면공학연구소, 목암생명과학연구소,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 연구활동을 하는 재단법인(operating foundation)에 국한되어 있음. 이중 목암생명과학연구소와 포항산업과학연구소는 각각 녹십자와 포스코의 지원을 받고 있음.
- 육성대상비영리법인으로 선정시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연계규정이 있어야 함.
  - 육성대상비영리법인으로 선정되어도 현재 구체적인 지원규정이 없고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정하는 법령에 연동되어 있지 않아서 현실적인 혜택은 없는 실정임.
  - 당분간 지정기부금 제도(허가제)의 구조를 바꿀 수 없다면 과학기술분야의 과학기술 지원 비영리법인을 지정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기관으로 지정해주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일 수 있음.

#### ▣ 과학기술자와 기업이 주도하는 시민재단(Community Foundation)의 모색

- 한국의 기부가 활성화되어 있지 못해서 기업 또는 개인의 개별기부만으로 일정한 규모의 재단 또는 사업기금을 조성하기만은 쉽지 않음.
  - 최근 창립된 과학기술지원 비영리민간재단들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기에는 여전히 작은 규모임
- 기업과 개인 등 다양한 출연처를 갖고 있는 <아름다운재단>을 모델로 하는 시민사회재단(Community Foundation)이 유력한 대안일 수 있음.
  - 계면연구소는 현 문광순 소장을 비롯한 과학기술자들이 계면공학(Interfacial Surface Science)의 연구를 위해 뜻을 모아 출연했음
  - 최근 설립된 흥곡과학기술문화재단도 정우택 전 해양수산부장관과 김창호산업정보연구소장 등 과학기술계 인사들이 중심이 되었음.
  - 최근 황우석 후원회 결성 등에서 알 수 있듯, 과학기술발전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발적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이고 규모있는 재단으로 조직하는 것이 필요함.
  - 특정 기업이나 특정기업인이 소규모의 출연에 기반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어려운 재단 대신에, 최근 벤처기업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된 <아이들의미래>처럼 과학기술발전에 뜻을 같이 하는 여러 기업들이 공동으로 참여한 재단이 한국형 모델일 수 있음.



- 폭넓은 참여자와 투명한 운영체계를 갖는 비영리민간재단이 만들어진다면 정부도 일정부분 출연하거나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현재, 정부의 시민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은 1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한국시민사회발전을 위한 청사진』) 명확한 법적 근거를 갖는 지원은 <비영리 민간단체법>(1999년 제정)에 입각해 행자부가 연간 100억을 지원하고 있음.
- 현재의 지원금액의 일부 또는 과학기술분야지원을 위한 새로운 지원근거를 만들 수 있을 것임.

##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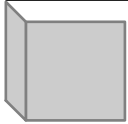
## 참 고 자 료

- 설러먼, 레스터 (Lester M. Salamon). 2000. 『NPO란 무엇인가?』 이형진 번역.  
아르케. 원제: *America's Nonprofit Sector: A Primer*
- 손원익·정재호·김형준·김상헌. 2004. 『기업의 준조세 부담과 정책방향』  
한국조세연구원
- 안하이어, 헬무트(Helmut K. Anheier), 스테판 퇴플러(Stefan Toepler). 2002.  
“제1장 자선재단”. 『재단이란 무엇인가?』 아르케
- 조성표·조성한·김진상. 2003. 『재단독립』 예영커뮤니케이션
- 전국경제인연합회. 2003. 『기업의 사회공헌 애로요인 조사』
- 삼성경제연구소 2004 『원원전략으로서의 상회공헌활동 현황과 시사점』 (Issue Paper  
2004.5.28.)
- 시민사회발전위원회 2004 『한국시민사회의 발전을 위한 청사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www.civilnet.net](http://www.civilnet.net))
- 三井トラスト ホールディングス (미쓰이 트러스트 홀딩스) 2005,  
“わが国の『寄附文化興隆』に向けて,” 가을호, No.51, 26-38.
- The Foundation Center. 2004. 『Foundation Giving Trends: Update on Funding  
Priorities』
- The Foundation Center. 2005. 『Foundation Giving Trends: Update on Funding  
Priorities』



The Foundation Center. 2005. 『Foundation Growth and Giving Estimates: 2004 Preview』

The Foundation Center. 2005. 『Foundation Yearbook: Facts and Figures on Private and Community Foundations』



## 저 자 프 로 필

### 김 석 현

- 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정책연구센터 부연구위원
- 미국 노틀담대학교 경제학 박사
- E-mail: skim@stepi.re.kr